

지역 소식

성역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대면 만남과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잊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며 성역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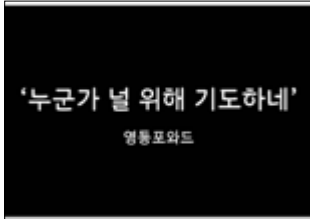


사진 설명.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영등포 와드 합창단의 노래 영상 캡처 화면, 성찬을 위한 빵과 물의 자료 사진(L2쪽 인천2 와드 내용 참고), 마장을 청소하는 밀양 지부 회원들의 모습, 류재춘 형제를 위한 반찬 만들기 대회의 출품된 반찬들, 신권 축복을 하는 밀양 지부 형제들의 모습.

코로나 사태에서도, 성신의 인도에 따른 성역 방식의 변화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성역을 베푸는 교회 회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이 약속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준다. 성역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구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후기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서로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구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역을 베푸는 영등포 와드 회원들의 이야기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영등포 와드에는 코로나19 이전에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해오던 합창단이 있다. 현재는 이렇게 모여서 합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난 2020년 4월 연차 대회를 통해 영등포 와드의 합창단의 노래가 전 세계에 방송되는가 하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가 2019년 방한했을 때 특별 합창을 담당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합창단원 한 명이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항암 치료를 위해 그녀는 가족의 면회마저 제한되는 중환자실과 무균실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장로정원회 회장 손종천 형제는 “자매님이 대학병원 무균실에서 온라인 성찬식에 힘겹게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러 회원의 아이디어와 영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사랑했던 자매님을 위해 온라인 합창을 함께 녹음해 전하기로 했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노래가 선택되었습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형제의 가족이 반주와 성부별 멜로디를 녹음해 공유했고, 회원들은 아기를 키우거나 직장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는 중에도 틈틈이 연습한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녹음했다.

합창 녹음에 참여한 최진현 자매는 “한두 번 녹음해서 보내려 했는데, 노래하면 할수록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 진심을 담아 열 번 넘게 부르고 녹음했습니다. 연습 자료를 보내주고, 녹음 파일을 모아 하나로 만드는 등 많은 분들이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모범을 따라 저 역시 성역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합창에 참여한 30여 명의 목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화음이 완성되었다. 마치 한 장소에 모여 함께 노래한 듯, 각각의 목소리와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병상에 있던 합창 단원은 회원들의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듣고 위안의 눈물을 흘렸다.

손 형제는 이번 성역 활동을 계기로 깨달은 바를 나누었다.

“도움을 주고자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하면 분명 도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하나가 되어 참여하는 동안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역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의 위안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베푸는 성역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의 김오 형제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온라인 안식일 모임이 진행되는 기간에 성역 대상자의 가정을 매주 방문하여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했다. 김 형제는 “올해 비대면 모임이 장기화되자, 가정에서 성찬을 취할 수 없는 자매님 한 분께서 와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의회에서 논의 후에, 성역 담당자인 제가 자매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았습시다.”라고 설명했다.

김오 형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라인 모임이 끝나면 안식일 복장을 갖춰 입은 채 근처 성역 대상자인 강정순 자매의 집을 방문했다. 성찬을 취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자매도 참석했다. 세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낀 채로, 성찬 의식이 집행되었다.

강 자매는 “김 형제님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성찬을 취했을 때, 왈각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성찬 축복문을 읽을 때도 눈물이 났지만, 성찬을 직접 취하니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는 김오 형제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전한다.

김 형제는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매주 성실하게 성역을 베풀었다. 작년 초에도 한 달간 축복이 된 성찬을 전달하는 봉사를 했으며,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 성역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과거에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성찬을 취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성찬을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주 한 시간의 시간을 들여 지속적으로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역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니 힘들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성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며 구하는 영감 어린 성역 아이디어들

창원 스테이크 밀양 지부 평의회에서는 성역을 위해 합심하고 영감을 구한다.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연세 지긋하신

한 명의 회원을 위해 지부 회원들은 평의회에서 논의하여 성역 활동을 준비했다. 회복 중인 류재춘 형제를 보살피기 위해 준비한 활동은 ‘류재춘 형제님을 위한 (온라인) 반찬 만들기 대회’였다. 회원 모두가 줌으로 자신의 주방을 비추며 류 형제를 떠올리며 즐겁게 요리했다. 요리한 반찬을 보내면서, 회원들은 더불어 각자 응원의 말을 영상 편지로 촬영하여 고3 청년인 박예린 자매에게 보냈고, 박 자매는 이를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했다. “제가 지닌 재능과 기술로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부족한 영상임에도 형제님께서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재능, 기술, 시간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지부 회장인 이종현 회장은 “줌을 통해 본 요리하는 회원들의 모습은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며 진정으로 하나 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평의회에서처럼, 성역자들은 동반자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영감받은 성역을 실천하고 있다. 창원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서문수 형제는 이따금 밀양 지부의 성역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는 동반자 한기현 형제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어야 할지 고민했다.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우정을 쌓는 것으로는 부족한 느낌이었다. 성역 대상자인 밀양 지부의 어떤 부부는 직업과는 별도로 소규모의 ‘마장(馬場, 말을 매어 두거나 놓아 기르는 곳)’도 운영하는데, 서 형제와 한 형제는 마장에 방문하여 잠시 둘만의 평의회를 열고 어떤 성역을 행할 수 있을지 상의했다.

“마방(馬房, 마구간)을 청소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나, 마방은 말의 배설물 등으로 돌이켜 청소하기엔 좀 벅찬 상태였다. 그때 이들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로 교회에 뜬해진 장영기 형제였다. 황금 같은 주말에 갑자기 마장 청소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기 망설여졌으나, 장영기 형제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명료했다. 기꺼이 오겠다는 것. 장 형제가 함께했던 이 날의 성역은 서 형제와 한 형제의 작은 평의회가 가져온 축복이었다.

한기현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성역에 있어서, 회원들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와 주신 장 형제님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할 때 봉사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기쁨, 희망, 가족 투어’ 2021 강북2 와드 온라인 선교 전시회*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동 스테이크 강북2 와드는 ‘기쁨, 희망, 가족 투어’ 선교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가 특별한 점은 집회소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열린 전시회라는 것이다. 전시용 보드판 대신 웹 페이지의 이미지와 동영상에 설명을 대신했으며, 줌(Zoom)을 통한 실시간 투어가 진행되었다. 성공리에 마무리된 온라인 선교전시회의 준비, 진행 과정과 회원들의 소감을 살펴본다.

온라인 선교 전시회 준비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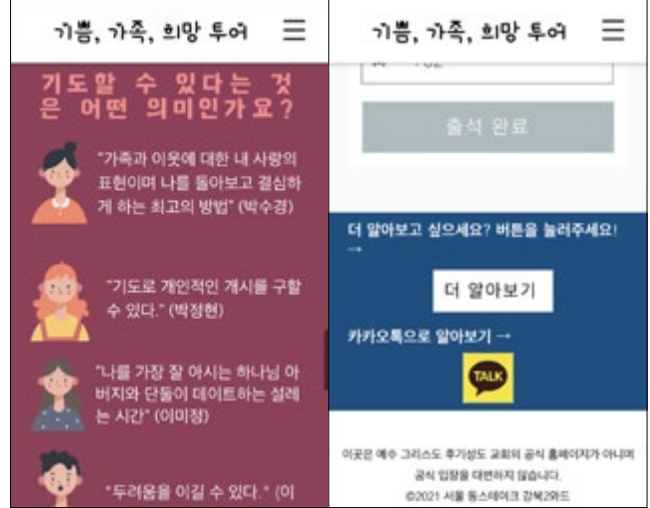
올해 3월 초, 와드 선교 지도자인 김영기 형제를 주축으로 온라인 선교전시회 준비 및 운영 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전시회의 주제와 내용을 정하고, 전시 방법을 논의했다. 유료 웹 페이지 도메인을 구입하고, 글,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흐르고 4월 중순경에, 마침내 전시회 웹 페이지가 완성되었다.

준비 및 운영 위원회에는 약 스무 명의 인원이 속해 있지만, 영어로 된 교회 공식 영상을 한국어로 더빙한 초등학교 회원, 일러스트를 그린 청년 독신 회원, 온라인 전시회에 첨부할 간증을 나눠준 연로한 회원들, 개인 SNS로 홍보에 참여하고 전임 선교사와 함께 투어 도우미로 참여한 회원들까지, 강북2 와드 대부분의 회원이 전시회를 완성하는 데 조금씩 기여했다.

위원회의 콘텐츠 팀장으로 봉사한 정신영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연로한 회원들까지, 대부분의 와드 회원들이 전시회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실제 참여함으로써 온라인 선교사업에 기여했습니다. 위원회 회원들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회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더해져 함께 완성해냈기에 더욱 뜻깊은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5일간의 온라인 전시회: ‘기쁨, 가족, 희망 투어’

온라인 선교 전시회 ‘기쁨, 가족, 희망 투어’는 5월 3일 월요일부터 5월 7일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가족, 친구, 이웃들을 초대했으며, 많은 비회원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시회 링크에 접속하여 관람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투어에 참여했다. 투어는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약속된 시간에 줌 링크에 접속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임선교사와 도우미 회원들이 10분가량 투어를 진행했다.

5일간의 전시회 및 투어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족, 구원의 계획 등 매일 각각 다른 주제가 다뤄졌다. 요일별 전시회 페이지에는 복음 원리가 간단히 소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간증과 교회 공식 영상 등이 첨부되었다.

매일 평균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전시회 링크에 접속했으며, 5일 동안 총 340명이 온라인 전시회를 방문했다. 온라인 실시간 투어에는 약 10명의 비회원을 포함하여 매일 평균 1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다.

‘기쁨, 가족, 희망 우정의 밤’: 눈물의 간증으로 마무리된 온라인 선교 전시회

선교 전시회 마지막 날인 7일 금요일 저녁, 강북2 와드는 ‘기쁨, 가족, 희망 우정의 밤’을 온라인으로 열고, 회원들과 비회원들을 초대했다. 위원회 구성원들과 강북2 와드 회원들은 그동안 선교 전시회를 준비하거나 참여한 뒤 느낀 소감을 눈물로써 나누었다. 비회원 가족, 친구들을 온라인 전시회에 초대한 회원들의 간증도 이어졌다.

온라인 선교 전시회의 전체 진행을 총괄했던 와드 선교 지도자 김영기 형제는 “위원회와 강북2 와드 회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서 기적의 전시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선교전시회를 통해 성도들의 큰 신앙을 보았으며, 어떠한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강북2 와드 최명엽 감독은 온라인 선교전시회를 준비했던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눈물지었다. “완성된 전시회 콘텐츠를 처음 보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콘텐츠에는 회원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각자 학업, 직장 등을 마치고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하고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널리 퍼져 나가고, 씨앗이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뉴스룸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뉴스룸: <https://news-kr.churchofjesuschrist.org>

“주는 길을 예비하시나니…”

서울 동 스테이크 김단이 자매

처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게 된 것은 8년 전이다. 큰아이의 학교에 책 읽기 봉사를 하러 갔다가 아이 친구의 엄마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언니, 동생으로 점점 가까게 지내게 되었으며,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다. 그 언니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닌다고 했다. 언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언니의 개종 이야기와 선교 사업 이야기 등을 들을 때면 언니의 행복함이 전해져 듣는 나도 즐거웠다. 언니는 교회의 음악회, 헬러윈 행사, 침례식 등 다양한 모임에 나를 초대했고,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느낌을 받았다. 종교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관해서는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7년 정도 지난 무렵, 교회 침례식에 또 한 번 초대받았다. 나도 알고 지내던 가족의 딸이 침례를 받는 날이었다. 침례식은 오직 한 소녀를 위한 날로, 많은 이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 가족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점이 이 가족을 교회로 이끌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침례식 후, 특별한 일정이 없었던 나는 뒤이어 진행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임의 주제는 ‘선교 사업’이었으며, 비회원이 할 만한 질문에 대답해 보는 상황극이 진행되었다. 모르는 내용이 많아 어색하게 앉아 있던 차에 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에 멍해졌다. “하나님은 힘들 때 의지가 되는 분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답에 확신이 없었다. 그때 한 자매님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나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그 말이 나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그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갑작스레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분들과 복음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선교사님과 복음 토론을 시작했고, 성찬식에 참석했으며, 물문경을 읽게 되었다. 선택 의지, 구원의 계획, 선지자 등에 대해 배웠고, 회복된 복음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침례를 결심하기까지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우선, 나는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실 정도로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또한, 가족의 반대도 큰 걱정이었다.

이러한 걱정을 하던 중에 니파이전서 9장 6절을 읽었다. “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도다. … 그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나니, 그는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이라.” 이 구절 속 ‘예비’라는 두 글자가 형광펜을 칠한 듯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 구절을 깊이 생각했으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을 통해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모임에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의 참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례를 결심했다.

하지만 침례 당일,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나는 깊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침례탕의 물이 생각보다 깊게 느껴져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다. 침례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되뇌며 물 안으로 들어갔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침례를 받는 순간, 이를 밀어내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무엇을 걱정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행복했고, 깨끗해진 느낌이었다.

나의 걱정과는 달리, 침례 후 신기하게도 커피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고 아쉬움도 없었다. 가족은 나의 신앙생활을 지지해줬을 뿐만 아니라 몇 달 뒤, 자녀들도 차례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 교회는 좋지만, 침례는 받고 싶지 않던 큰아이는 이제 성전을 그리워하고 세미나리에 열심히 참여한다. 작은아이는 가요보다 찬송가를 더 자주 흥얼거린다. 주님께서 나의 작은 걱정과 불안마저 다 알고 이해하시며, 나를 도와줄 방안을 예비해 두셨음을 안다.

물론 교회에 다니면서 삶의 시련과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의논하면서 내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의 마음은 더없이 편안하며 행복하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서울 남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권태휘 형제(전임: 강중훈 형제)
제1보좌: 박경렬 형제
제2보좌: 김현승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